

## TRANSCEN, 과학과 연구 분야의 인적 자원 개발에 관한 워크숍 개최

**체**코의 지식기술이전 교육센터인 TRANSCEN이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체코 리베레츠에서 “과학 및 연구 분야의 인적자원개발(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in science and resea

rch)”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과학 및 연구 분야의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노하우와 경험을 교환할 수 있는 국제 플랫폼을 창설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워크숍에는 인적자원 관리자, 과학

자, 연구자, 교육전문가, 학자뿐만 아니라 이 분야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참가할 수 있다.

출처 : IPR Helpdesk

## EU, 의회와 이사회에 표준화 및 혁신에 관한 의견서 제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최근 “유럽에서의 표준화와 혁신의 기여 확대(Towards an increased contribution from standardisation to innovation in Europe)”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유럽 의회와 이사회에 제출했다.

표준화란 기업, 소비자, 공공기관이 합의를 바탕으로 기술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자발적인 협력을 말한다. 유럽에서는 CEN, CENELEC, ETSI가 표준을 개발하며, 이는 EU에서의 입법 시에 참고되고 있다.

이번에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의견서

에는 표준화가 실질적인 산업정책의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으며, 잠재적인 혁신시장을 열어줄 수 있고, 지식을 기반으로 좀더 효율적인 자본화를 통해 유럽의 경제적 지위를 강화시켜줄 수 있다는 것이 강조되어 있다. 또한, EU 표준화 정책이 혁신을 위해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 핵심 요소들을 밝혀주며, 증가하고 있는 국제 표준화 선정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권고사항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길 기대하며, 그에

따라 준비중인 유럽표준화를 위한 전략(Action Plan for European Standardization)을 수정할 것이라고 한다.

더불어, 지식재산권과 표준화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한 진상연구조사도 곧 시작한다고 밝혔다. 표준화는 일반에 공개되고 모든 사람들에 의해 이용되는 성질을 갖고 있는 반면, 지식재산권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만 독점권이 부여되어 있는 차이점이 있지만, 양쪽 모두 혁신을 독려하고, 지식의 보급을 촉진하는데 기여한다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다.

출처 : IPR Helpdesk



## ERA 전문가 그룹, 유럽연구인프라에 관한 보고서 출간

**유** 럽 단일 연구 지역(European Research Area)의 여러 가지 쟁점에 관한 조언을 얻기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구성한 7개의 전문가 그룹 중 하나가 유럽연구인프라에 관한 보고서를 출간했다.

동 보고서는 지금까지 시행된 사업들의 긍정적인 결과는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로 유럽의 인프라를 더욱 발전시키려면 연구비 지원을 늘리고, 이용가능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 특히, 집행위원회, EU 회원국, 연구인프라에 관한 유럽전략포럼, e-인프라평가그룹 간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RA 전문가 그룹은 차세대 범 유럽인

프라와 e-인프라에 관해서도 최첨단 연구가 끊임없이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인프라를 요구하며, 때로는 지역적 차원이거나 개별 국가적 수준을 넘어선 것을 요구하기도 하기 때문에 연구인프라정책의 효과적인 이행은 유럽연구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IPR Helpdesk

## WIPO, 태국 방콕에서 지식재산 서머스쿨 개설

**세** 계 지식재산권기구(WIPO)가 5월 6일부터 16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여름학교(Summer school)를 개설한다.

이번 서머스쿨은 곧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될 대학 고학년들과 지식재산 관련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전문가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지식을 높이고, 지식재산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발전을 위한 도구로서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종합 프로

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가비용은 학생의 경우 미화 300달러, 직장인의 경우 500달러이다.

출처 : IPR Helpdesk

## 유럽 통계청, '유럽의 과학기술혁신' 에 관한 2008년판 보고서 출간

**유** 럽연합의 통계청인 Eurostat가 “유럽의 과학기술혁신(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in Europe)”에 관한 2008년판 보고서를 출간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기간이었던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유럽국가들의 연구개발(R&D) 투자는 평균적으로

로 GDP의 1.84% 수준에 머물러, 유럽연합의 R&D 투자 목표인 2010년까지 GDP의 3% 달성에는 훨씬 못 미쳤지만, 스웨덴과 핀란드가 각각 GDP의 3.83%와 3.45%를 R&D에 투자함으로써 이러한 목표가 실현이 가능한 것임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이 밖에도, 동 보고서에는 기업들의 혁신활동 및 특허출원활동, 2006년의 하이테크 및 미디엄 하이테크 제조분야와 지식집약서비스 분야의 R&D 고용 동향에 관한 통계 자료가 제공되어 있다.

출처 : IPR Helpdesk

## 유럽의회, 유럽혁신기술연구소 설립 규정에 찬성

유럽의회가 유럽혁신기술연구소 (European Institute of Innovation and Technology)의 설립규정안을 가결했다. EIT는 유럽연합내의 기업, 연구기관, 고등교육기관 간의 제휴 및 협력을 촉진하고 강화하여, 향후 유럽의 일자리 창출 및 성장을 돕기 위해 제안되었다.

EIT는 고등교육기관, 연구기관, 기업

및 기타 혁신 과정에 참가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핵심 자원을 한데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될 지식혁신 커뮤니티(Knowledge and Innovation Communities)라는 고도로 통합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2008년 6월까지 EIT를 관리할 기업계, 연구계, 학계의 전문가 18인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선임될 것이며, 2009

년 말까지는 지식재산 커뮤니티도 2-3개가 조성된다. 이러한 지식재산커뮤니티들은 EU가 현재 직면하고 있거나 곧 직면하게 될 중요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그러한 전략적인 분야에는 기후변화, 재생가능에너지, 차세대 정보통신기술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출처 : IPR Helpdesk